

# 콜럼버스 교구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



본당주소: St. Leo Catholic Church, 221Hanford St. Columbus, OH 43206

홈페이지: <http://www.kcolumbus.org>

주임신부: 김충귀 베드로 신부 (badakck@yahoo.co.kr, 614-961-0980)

- \* 주일미사 :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
- \* 평일미사 : 매주 금요일 오후 7시30분
- \* 성시간 : 매월 첫째 금요일 미사 후
- \* 유아세례 : 매월 둘째 주일 미사 후
- \* 병자봉성체 : 매월 셋째 주일 미사 후

## 본당소식

### ◆ 콜럼버스 교구 프레드릭 주교님 사목 방문 안내

- 일시: 12/27(일) 오전 10시 30분 주일미사 중
- 바쁜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프레드릭 주교님께서 저희 공동체를 방문하셔서 미사를 거행 하실 예정입니다. 많은 신자들이 참여하셔서 주교님을 환영하고, 사도들의 후계자인 주교님을 통해 미사 중 은총을 청하시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- 미사는 영어미사로 거행 될 예정입니다.

### ◆ 송년 미사 안내

- 일시: 12/31 (목) 저녁 7시 30분

### ◆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

- 일시: 1/1 (금) 오전 10시 30분
- 4대 의무 대축일 중에 하나인, 천주의 모친 성마리아 대축일 미사에 참석하셔서 새로운 한해를 하느님의 은총속에 시작 할 수 있도록 합시다.

### ◆ 청년회 피정 안내

- 일시: 12/27(일) 오후3시부터 12/29(화) 12시까지
- 장소: Hocking Hill
- 신청문의: 미사 후, 청년회 간부에게 문의바람

### ◆ 성탄 판공성사 안내

- 판공성사를 못 보신 분들은 성탄 시기인 1/3(일) 주님공헌 대축일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 ◆ 1월 성시간 변경 안내

- 1월 첫째주 금요일은 대축일 미사가 있는 관계로, 1/8(금) 저녁 7시 30분 미사후에 거행됩니다.

### ◆ 유아세례 안내

- 1/3 (일) 주일 미사후, 성당에서 거행 될 예정입니다. 신청서는 사무담당에게 배부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### ◆ 2010년 매일미사책 정기구독 신청안내

- 1년 구독료: \$40
- 신청방법: 김상욱 안토니오 형제님께 문의바람
- 전화번호: 614-218-1702

### ◆ 가을 음악회 CD 판매 결산 보고

- 총 판매: 86장
- 총 수익: \$ 395
- 참여해주신 많은 신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.

### ◆ 성탄제대 및 꽃 봉헌 결산 보고

- 봉헌금 총액: \$ 362
- 꽃&꽃받침: \$ 332.64
- 아기 예수님 성탄에 꽃봉헌을 해주신 많은 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.

### ◆ 오늘 미사후에 주교님 환영식이 있을 예정이오니,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.

주보문의: 김성하 가브리엘 (sunghakim7@gmail.com)

##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

주 일 헌 금	\$600.00
교 무 금	\$1,380.00
감 사 헌 금	\$300.00

- ◆ 교무금: 이현정, 연도흠, 조주현, 박석현, 김도균, 최준표, 김성애, 김명호, 김태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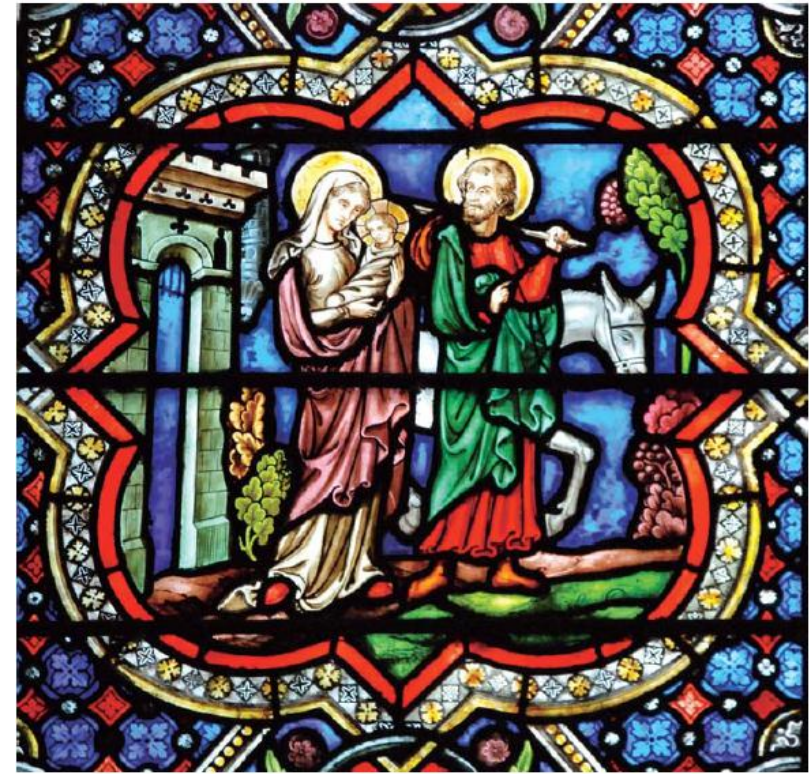
- ◆ 감사헌금: 장병태



# 성 대건안드레아 한인 천주교회

St. Andrew Kim Taegon Korean Catholic Community

예수, 마리아, 요셉의 성가정 대축일 December 27, 2009



<이집트로 피신하는 성가족> 유리화, 노트르담 대성당, 파리, 프랑스

“부모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.”

# 오늘의 전례

**제 1 독서** 집회서 3,2-6.12  
 “주님을 경외하는 이는 아버지를 공경한다.”

**화답송**



**제 2 독서** 사도 바오로의 콜로새서 3,12-21  
 “하느님, 저는 당신의 뜻을 이루러 왔습니다.”

**복음환호송** ◎ 알렐루야  
 주님, 저희 마음을 열어 주시어, 당신 아드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소서. ◎

**복음** 루카 2,41-52  
 “부모님 율법 교사들 가운데 앉아 있는 예수님을 찾아냈다”

## 공동체를 위한 목주기도 50만단 바치기 운동



- 지향1) 공동체 자체 건물 마련을 위한 지향
- 지향2) 공동체 안에서 고통중인 신자를 위한 지향
- 지향3) 공동체 안에서 성소자 계발을 위한 지향

구역	지난주일	합계
김제준	단 명	5,923단 34명
이호영	330단 3명	28,602단 207명
정하상	단 명	3,485단 77명
황석두	단 명	7,460단 78명
김효임	단 명	1,171단 29명
기타	단 명	130단 3명
미사중	단 명	12,109단 10,315명
	330단 3명	2/22/04 - 12/20/09 (302주)

♣ 총누계: 223,620단 12,842명  
 목주기도 목표단수는 매주 5천단입니다.



## 봉사자 안내

	12/27	12/31	1/1/10	1/3/10
<b>해설자</b>	고상식	김오경	안유신	박귀영
<b>독서/봉헌</b>	김제준 구역	김효임	정하상	이호영
<b>보편지향 기도</b>	증거자의 모후	바다의 별	십자가의 모후	평화의 모후

## 오늘의 성가

♫ 입당: 55      ♫ 봉헌: 210  
 ♫ 성체: 188, 178      ♫ 파견: 55

## 가정의 중심

정광재 요아킴 신부 | 상설고해사목부

한가정의 중심은 과연 누구일까요?(아버지, 어머니, 자녀들, 어르신) 어렸을 적에는 아버지가 가정의 최고이며 중심이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며 지내왔습니다. 그런데 제가 IMF 경제위기 때 본당에서 지켜본 가정의 중심은 달랐습니다. 누가 봐도 화목한 가정이었었는데 남편의 실직을 통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정은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렵고 힘든 생활로 변해 갔습니다. 반면에 다른 가정도 상황은 비슷했지만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.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생은 하고 있었지만 가족들이 모두 성당에 나왔으며 서로 의지하며 지내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. 저는 두 가정을 비교해 보면서 다른 점 하나를 찾았습니다. 첫 번째 가정의 어려움 속에서는 엄마가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, 두 번째 가정은 엄마가 자신의 자리를 잘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. 이 모습을 보며 저는 가정의 중심은 바로 어머니요, 아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. 예전 직장사목을 할 때 운전기사 사도회 형제들과 피정 중에 어느 형제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. “저희가 이렇게 밖에 나가 일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내가 가정을 잘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.” 오늘은 예수, 마리아, 요셉의 성가정 축일이며, 물론 이곳의 중심은 예수님이십니다. 그러나 제3자로서의 주님이 아니라 구성원 각자의 마음 안에 하느님이 '아빠, 아버지'로 함께 계시 때 성가정이 된다고 생각합니다. 가정의 시작은 결혼이 아닐까요? 전 혼배미사 강론의 마지막 부분에 이런 그림을 보여 드립니다. 무엇이 보이십니까? 아마 “까만 점이 보입니다.”라고 대답하실 것입니다. 보시다시피 흰 종이에 까만 점 하나가 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. 그러나 이 그림에는 흰 부분이 까만 부분보다 훨씬 많습니다. 여기서 까만 점은 서로가 갖고 있는 단점을 뜻하며, 흰 부분은 장점을 의미합니다. 그런데 우리 눈에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많은 장점보다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단점이 쉽게 보입니다. 그러나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단점도 서로를 하나로 뭉쳐주는 구실을 합니다. 왜냐하면 ‘내가 그의 곁에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줘야지.’하는 열망이 있기 때문입니다. 가정공동체 내의 사랑을 확인하며 새로운 한해를 맞이 했으면 좋겠습니다.

## 안 내

### ◆ 본당 사무담당 업무 안내

- 담당자: 이호근(라파엘), 김태형(T.아퀴나스)
- 업무시간: 미사 후 부터 친교시간 동안
- 장소: 친교실, 재정 담당자 옆자리
- 업무내용: 각종 증명서 발급신청 (세례, 견진) / 각종 신청서 배부(유아, 견진, 혼인성사) / 판공성사표 배부(성탄, 부활) / 전입 및 전출 교적 접수 및 신청 / 본당 신부 면담 신청자료 배부(새로 오시는 신자들) / 기타 사무업무
- 새로 오시는 신자들(체류기간 1년 이상)은 교적을 꼭 본당 사무담당에게 제출해 주시고,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구역을 배정받으시길 바랍니다.
- 새로 오시는 학생분들도 꼭 본당 신부와 면담후에 신심단체에 가입하셔서, 힘든 유학생들이지만 신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도록 합시다.

### ◆ 청년 협의회 안내

- 회장: 박필성(바오로)
- 부회장: 양희진(에밀리아) 윤정환(스테파노)
- 총무: 이슬보라(엘리사벳)
- 서기: 김환 (스테파노)

### ◆ 교무금 및 기타 납부금 안내

- 장소: 사제관 1층, 본당신부 사무실
- 신자들께서는 사제관 1층 정문 우측편에 있는 본당신부 집무실에 있는 재정위원들께 납부금을 내시면 됩니다.

### ◆ 성모회에서 한국 비디오와 아리랑 식품 상품권을 판매합니다. 판매금액의 10%가 성모회 기금으로 모입니다. 교우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.

### ◆ 2009년 BAA(Bishops' Annual Appeal) 안내

- 올해 우리 공동체 목표 금액은 \$5,700이며, 지난해까지 모금액은 \$5,080입니다. 교우님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